

2017 년 6 월 4 일 “찾아오신 예수님(31) 더욱 사랑하시는 주”(요 14:22-31)

<도입>

14-17 장 - 예수님의 고별 말씀.

1 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 위로의 말씀.

2 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 희망의 말씀.

14 장 세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5 절 도마 -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2. 8 절 빌립 -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3. 22 절 유다(마 10:3 다대오) '왜 우리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1] 예수님의 답변: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23 절)는 말씀은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세상에는 안 알리시는 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회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온 세상에 자신을 공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23 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구주가 오시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은 그와 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기 존재와 위엄을 드러내고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사랑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기술이 요구되는 생존 방식을 강조합니다. 생존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사랑 없으면 결국 생기를 잃은 삶을 살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

따라서 23 절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내 영혼이 메마르고 의혹이 생기고 생기를 잃는 것은 사랑의 결핍 증세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함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못 알아차리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삶에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 불편함과 희생이 빠지게 됩니다. 참 사랑은 나의 불편과 손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의욕 감퇴, 기쁨과 열정의 부재는 불편과 손해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할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편하고 싶은 열망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의욕과 희망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의 분이십니다. 사랑하심으로 먼저 십자가의 불편함과 인생의 큰 손해를 감수하셨는데, 죽기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27 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7:13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이다' 라고 하십니다.

[3] 아버지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당신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이 구절에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특별하고 개인적인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강렬한 사랑 체험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상속을 물려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 절 후, "...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make our home with them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표현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했습니다(엡 1:18).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 즉, 그분 말씀을 지키며 불편과 손해를 동반하는 희생의 사랑의 본을 좇는 제자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과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축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생명(영생)의 힘입니다. 내가 지금 게인스빌에 왜 살아야 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통찰, 그것이 삶에 동기부여를 주고 열정을 줄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와 신실함과 관용 등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힘은 참다운 생명의 부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의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열어주려고 **말씀 안에서 사랑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받지 못하는 성령입니다(16 절). 26 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십니다.

#### <맺음>

예수 믿음의 본은 먼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사도성의 뿌리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많은 보화와 같은 생명의 부요를 위해 얻는 축복과 자원이 넘치길 바랍니다.

####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이 유다의 질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의 소명을 우선순위에 놓고 행하셨습니까?
2.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23 절을 통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 생생한 축복을 얻었습니까?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어떤 힘(동기부여, 지혜, 새 성품의 형성 등에...)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대한 한 가정의 상속자가 되어 이 축복을 얻습니다. (23 절 후. "...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make our home with them))